

지중해 바람처럼...가속페달 5.2초만에 제로백

<시속 0→100km>



마세라티 첫 SUV '르반떼'

**우렁찬 배기음·폭발적인 힘
근육질의 차체 시선 압도
드라마 '도깨비' 공유 차로 유명
추돌 경고·자동 제동 등 첨단사양
넓은 뒷자석 레저에도 안성맞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아니다, 마세라티다.” 지중해의 바람은 온화하면서도 순간 저항할 수 없는 강풍으로 돌변한다. 마세라티는 자신의 첫 SUV에 이와 같은 성격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차명에는 지중해 바람이라는 뜻인 ‘르반떼(Levante)’를 붙였고, 전체적인 실무엇은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뿔아냈다.

르반떼는 102년 역사를 갖는 마세라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델이다. 마세라티는 경주차를 시작으로 고급 스포츠카 그리고 고급 세단만을 만들어 왔지만, 자동차 시장 흐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SUV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고 우락부락하기만 한 SUV를 만든 것은 아니다. 마세라티의 디자인 철학과 경주차의 DNA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공식 출시한 르반떼는 2가지 기술린 모델과 1가지 디젤 모델 등 총 3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기술린 모델 ‘르반떼’는 역동적이면서도 공기역학에 최적화된 쿠페 형태의 디자인으로 SUV모델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공기저항계수 0.31을 실현했으며, 동급 최고 수준의 낮은 차체 설계를 구현하는 등 스포츠카 드라이버도 만족할 만한 최상의 퍼포먼스를 자랑했다.

외관 디자인은 마세라티 브랜드 고유의 특색과 이탈리아 안 디자인의 미학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존의 마세라티 모

델에서 볼 수 없었던 신형 디자인의 헤드라이트와 마세라티 고유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를 이룬 차량 전면부는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삼지창이 새겨진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측면 휠다에 자리 잡은 사다리꼴 형태의 에어 벤트, C필러에 새겨진 ‘세타(Saetta)’ 로고 등 한 눈에 마세라티 모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 시그니처 디자인도 다수 적용되었다.비스듬히 기운 뒷유리창과 유선형 디자인, 4개의 머플러 팁이 강조된 차량의 후면부는 고성능 스포츠카의 면모를 드러낸다.

마세라티가 내세우는 개인 맞춤형 인테리어 제작 서비스도 르반떼에 적용된다. 시트 가죽은 총 28가지의 인테리어 색상 조합이 가능하며대시보드, 핸들, 헤드라잉 등 실내를 개인 취향에 따라 맞춤 주문할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은 ‘럭셔리 패키지’와 ‘스포츠 패키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기술이 반영된 다채로운 내외관 옵션을 조합할 수 있다.

마세라티의 희소가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에르메네질로 제냐’ 옵션은 럭셔리 패키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주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각종 첨단 사양들도 탑재됐다. 오토 스타트앤드 스톱, 어댑티브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 다양한 최신 주행 지원 시스템이 기본 사

양으로 적용됐다. 르반떼 라인업 중 최상위 모델인 ‘르반떼 S’는 3.0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ZF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430마력, 최대토크 59.1kg.m의 성능을 갖췄다. 제로백(시속 100km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5.2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264km/h로 동급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연비는 리터당 6.4km(도심 5.6km, 고속7.8km)다.

3.0 V6 터보 디젤엔진을 장착한 ‘르반떼 디젤’은 최고출력 275마력, 최대토크 61.2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제로백은 6.9초이며 최고 속도 230km/h에 연비는 리터당 9.5km(도심 8.7km, 고속10.7km)다.

에어스프링과 스카이크루 전자제어식 댐퍼가 적용된 서스펜션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서스펜션은 전문에 더블 위시본, 후륜에 멀티 링크 타입을 채용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50대50의 완벽한 전후 무게 배분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정교한 핸들링을 구현했으며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거친 길에서도 동급 최고 수준의 승차감과 핸들링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마세라티만의 지능형 사륜구동 기술인 ‘Q4 시스템’ 역시 전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내 가격은 ▲르반떼 1억1400만원 ▲르반떼 S 1억4600만원 ▲르반떼 디젤은 1억1000만원 부터 시작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블리·콰트로포르테 구매시 선수금 최저 0%

내달까지 마세라티 한국 10주년 프로모션... 르반떼는 취득세 지원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가 한국 시장 진출 10년을 기념해 르반떼, 기블리 그리고 콰트로포르테 구매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마세라티 한국 10주년 특별 프로모션’을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10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중 르반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취득세를 지원하고, 10명을 추천해 1000만원 상당의 이태리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제세공과금 22% 본인 부담). 기블리와 콰트로포르테 구매 고객에게는 선수금을 최저 0%까지(0%, 10%, 20%, 30% 중 선택)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부담 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6개월 금융리스, 유예율 60% 적용.

마세라티 공식수입사 (주)FMK 관계자는 “한국 시장 10년을 맞은 올해 마세라티 인기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서는 등 유례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10주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세라티 공식 딜러 (주)LV 위본모터스가 운영하는 마세라티 광주전시장은 수입차 판매장 밀집지역인 상무지구 에 위치, 지역 랜드마크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면적 1919㎡(약 580평), 5층 규모로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쇼룸과 서비스센터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판매부터 서비스, 정비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3S(Sales, Service, Spare Parts)를 구축, 고객 편의를 위한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전시장에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콰트로포르테, 4인승 럭셔리 스포츠카 쿠페 그란투리스모, 4인승 럭셔리 키블리올레 그란카브리오, 이그제큐티브 스포츠 세단 기블리 등 세단에서 쿠페까지 다양한 라인업의 차들이 전시돼 있다. 또 지난해 출시한 마세라티 최초의 SUV 르반떼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376-8181.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옆 마세라티 광주전시장